

중국 조선족 성인 여성 체형 연구

-2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임 순·석혜정

인천대학교 패션산업전공

1. 서론

해외 거주 한국인은 동일한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 환경, 생활여건, 경제 수준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른 신체적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 거주 한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연변과 하얼빈에 거주하는 조선족 20대와 40대 여성의 체형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70여년간의 단절로 인해 동일한 민족이 체형에 있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연변과 하얼빈에 거주하는 조선족 20대, 40대 여성의 신체 계측치를 비교한다.
2. 중국 연변과 하얼빈에 거주하는 조선족 20대, 40대 여성과 우리나라 20대, 40대 여성의 신체 계측치를 비교한다.
3. 중국 연변과 하얼빈에 거주하는 조선족 20대, 40대 여성의 신체 계측치를 요인분석하여 체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계측대상자는 중국 연변과 하얼빈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123명, 40대 114명이였다. 계측 시기는 2004년 2월 12일부터 2월 22일 사이 였다.

계측항목은 전신으로 높이 20항목, 너비 12항목, 두께 13항목, 둘레 14항목, 길이 19항목, 기타 2항목 총 80항목을 계측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요인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1) 중국 연변과 하얼빈에 거주하는 20대와 40대 여성의 신체 계측치 80항목 중 높이항목과 둘레항목이 개인차가 컸다. 특히 허리둘레(8.1), 배둘레(8.1), 밑가슴둘레(7.9), 몸무게(7.5), 가슴둘레(6.6), 윗가슴둘레(5.9), 엉덩이둘레(5.3), 밑위앞뒤길이(5.2), 키(5.2) 항목의 편차폭이 커, 비만에 의한 개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20대와 40대 여성의 신체 계측치를 비교한 결과 40대 여성이 신체 비만과 상관성이 높은 너비, 두께, 둘레 항목과 길이 항목 중 횡적 길이 항목이 20대에 비해 더 길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키를 비롯한 높이 항목은 20대가 더 높았다. 그러나 길이항목 중 종적 길이 항목은 40대가 20대에 비해 더 길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반신이 길고, 엉덩이길이가 길어, 다리가 짧고, 가슴이 쳐진 형태였다. 어깨 관련 항목들은 연령과는 관련이 없었다.

(2) 중국 조선족 여성의 주요 부위의 신체 계측치(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와 '97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21세는 키, 배둘레 항목에서 차이가 있고, 키는 한국 여성이 더 컸고, 배둘레는 조선족 여성이 더 컸다. 22-24세는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항목에서 차이가 있고, 키는 한국 여성이 더 컸고,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는 조선족 여성이 더 컸다. 25-29세는 키, 허리둘레, 배둘레, 몸무게 항목에서 차이가 있고, 키, 몸무게 항목은 한국 여성이 더 컸고,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중국 여성이 더 컸다. 40-49세는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 항목에서 차이가 있고, 키는 한국 여성이 더 컸고,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항목은 조선족 여성이 더 컸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중국 조선족 성인 여성과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신체 계측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레항목은 대체적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이 더 컸고, 키는 한국 여성이 더 크나, 몸무게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어 조선족 여성이 한국 여성에 비해 키가 작고 통통한 형태였다.

(3) 중국 조선족의 체형을 구성하는 요인은 비만(요인 1), 종적크기(요인 2), 상반신앞길이(요인 3), 다리크기(요인 4), 상반신뒤길이(요인 5), 팔크기(요인 6), 어깨길이(요인 7), 목밑크기(요인 8), 가슴형태(요인 9), 어깨각도(요인 10)로 나타났다. 총 설명력은 77.3%이고, 각 요인의 설명력은 27.4%에서 1.6%로 분포하고 있다.

4. 참고문헌

- 남은우, 배성권, 박기만(1996). Rohrer 지수에 의한 한국과 중국 연변 지역 조선족 아동의 체격 비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1), 43-53.
- 이종미, 김미경, 박혜진(2001). 연변 조선족 주부와 여대생의 식생활 실태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6(1).
- 임순, 손희순, 김효숙, 손희정, 장희경(1999). 한국과 중국조선족 여대생의 체형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228-1239.
- 임순, 손희순, 석혜정(2003). 중국 성인 여성의 체형 연구 I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7), 831-842.
- 정성호(1998). 해외 한인의 지역별 특성. 한국인구학, 21(1), 105-128.